

## 현장사례(1)

## CLEAN 3D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한산업보건협회 최 충 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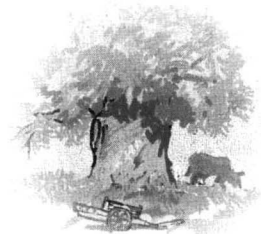
2002년 4월 15일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던 중국 민항기가 인근 야산에 추락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다음날 아침은 비가 추적 추적 내리고 있는 가운데 여느때 처럼 CLEAN 3D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초구 내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를 방문하였다.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하고 가서인지 사장은 소박한 모습으로 따뜻하게 사무실에서 맞이하여 주었다. 사무실은 온통 인조 돌가루의 먼지 투성이고 움직이면 금방이라도 재비산할 것 같았다. 여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장이 직접 사무도 보고 생산에도 참여하는 듯 보였다. 직접 등글레 차를 내오면서 내심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불신임을 하듯 걱정하는 표정으로 무슨 내용인지 급하게 물어 보았다.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작업현장을 거쳐서 들어 가야 하는데 작업장은 인조석"을 절단, 연마하는 소리와 먼지가 작업장을 뒤덮고 있고, 환기는 고작 벽면에 부착된 팬이 전부였다. 내어준 차를 한모금 마시고 나서 CLEAN 3D사업의 취지와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고 정부의 CLEAN 3D 지원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었다. 그때 사장은 다소 밝은 표정으로 적극적인 협

조를 해 주시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털어 놓기 시작하였다. 이야기인 즉 3D 업종이라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급기야 사장은 생산 일을 겸하면서 그 무거운 인조석을 들고 작업대에 옮겨서 일을 하고 끝나면 내려 놓았다가 차에 직접 들어서 싣는 일을 하다보니 최근에 요통 장애가 생겨 일을 도울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오랜동안 일구어 온 사업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지만 이제나 저제나 정리할 계획과 부부끼리 봉어빵을 굽더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다고 하였다. 짐작은 했지만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여 내온 차를 한모금 마시고 좀 더 자세한 사연을 들어 보기로 하였다. 사장은 배운 것도 없고 젊어서 유사한 일에 종사해 오던 중 우연한 기회에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천직으로 삼고 일을 해오면서 CLEAN 3D업종이라 주변에 공장은 물론 정부로부터 천덕 꾸러기 신세가 되고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건자재라면서 정부에서 보호를 해주는 정책은 하지 않고 점점 지방으로 떠 밀려 사업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정부 규제 또한 골칫거리라고 하면서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착한 사람은

## CLEAN 3D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밝고 환한 웃음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발 붙일 곳이 없고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 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은행 빛이 많아서 마음 놓고 사업을 정리하기도 힘든 상태이며 더구나 몸도 불편한 상태에서 일을 도울 수가 없다고 하였다. 집안에서는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많은 기대를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실정을 알고부터 시골 고향 삼촌이라는 분이 비수기 때는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서울의 친적도 입장을 알고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경험도 없는데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미안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신세를 지고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을 한탄하고 있었다. 그래

서 사장의 두손을 꼭 잡고 '용기를 내세요.'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 해보았다. 깨끗한 사업장 만들기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권유하며 CLEAN 3D 무료 시설 개선 지원 신청서에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팩스 신청을 하여 주고 다음 회차에 방문하겠다고 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비는 더욱 많이 내리고 웬지 돌아서는 내 발걸음은 가볍지가 않았다.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지만 만드시 CLEAN 3D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밝고 환한 웃음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다음 방문 사업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김민**



1) 돌가루 60%와 아크릴 40%에 주제와 경화제로 접착한 제품